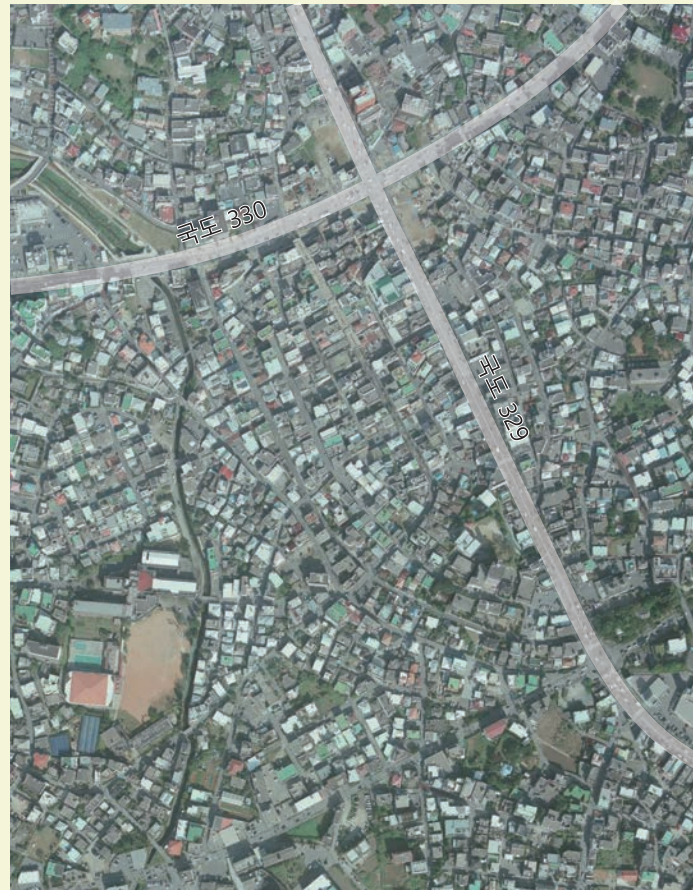


데루야의 위치



2010년 데루야 마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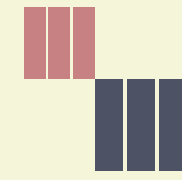


Source: Geospatial Information Authority of Japan website

오кина와시 문화재 지도 데루야

2017년도 발행
 발행 오кина와시 교육위원회 오кина와시립 향토박물관
 ZIP 904-0031
 오кина와현 오кина와시 우에치 2-19-6 오кина와시 문화센터 3층
 TEL : 098-932-6882
 FAX : 098-933-6218

데루야



데루야 마을에 대하여

도바루는 방언으로 "도오바루"라고 합니다. 1713년의 역사 자료 "류큐국 유래기"에는 도바루의 우간주(기원 장소)로서 "도바루노톤 (桃原之殿)"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을의 발상지는 오자토의 노바루라고 불리는 장소(현재 국도 329호와 오키나와현도 20호가 끼는 주변)입니다. 그런데 당시 마을이 있던 장소는 산사태가 빈번하여 위험하였기 때문에, 류큐왕부가 이주해야 한다고 명하여 현재 구니가미촌 헨토와 그 주변으로 옮기게 될 뻔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자토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현재 위치로 이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키나와 전쟁 이전에는 논밭 지대가 펼쳐지는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오키나와 전쟁 이후, 미군의 아와세 비행장 건설 계획으로 인해 인접한 오자토와 함께 강제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중지되어 도바루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논밭 지대의 모습이 남아 있었지만 현재는 개발되어 택지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1945년 데루야 마을 모습



Aerial photograph taken by US military forces ON24146 054-1 (property of the Okinawa Prefectural Archives)

오키나와시 문화재 지도





1 아가리누타키

우타키 성지의 신, 신녀의 신, 불의 신을 모신 배례 장소입니다. 1950년대 진행되었던 구획 정리에 의해 지금의 장소에 합사되었습니다.

현재에도 마을 행사에서 절을 올리며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2 아가리누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쓸 물을 길는 우물이었습니다. 또한 음력 1월 1일에는 새해 첫 물을 이 곳에서 길었습니다.

현재도 음력 1월 1일 설 때 배례를 드리고 있습니다.

칼럼

우비나디

우비나디; 오키나와 여러 섬에서 행하고 있는 주술. 마을에서 소중히 여기는 우물에서 퍼 올린 물을 담은 그릇에 중지 손가락을 넣어 적신 후 이마를 세 번 만집니다. 마귀를 쫓는 것과 건강 기원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설 때, 할머니가 이마에 물을 적시어 주신 경험이 없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우비나디입니다. 설이 아닐 때에도 우비나디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경우1>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태어나면 마을에서 소중히 여기는 우물에서 퍼올린 물로 우비나디를 했습니다. 아기의 생명력을 높이고 산후의 정화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경우2> 결혼식!

현대와 달리 옛날에는 자택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첫 순서에 부부의 연을 깊게 하는 의례로서 우비나디를 했습니다.

위의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평소 조금 섬찝한 느낌이 드는 곳을 지나가게 될 때 마귀를 쫓는 의미로 우비나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침으로도 대신하기도 합니다.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칼럼

전쟁 전 데루야 마을에서는 음력 8월 11일에 "요카비"라는 마을 사당에서 다마가이(도깨비 불)가 올라가는 지를 살펴보는 마을 행사가 있었습니다.

데루야 마을에서는 지대가 높은 스티치 언덕(현재 데루야 제2공원 남쪽 일대)에서 마을을 살펴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막대기 끝에 향 다발을 걸어 올려, 높은 지대에서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티치 언덕 위에서 막대기를 들고 큰 목소리로 지시를 내려 마을 안을 이동하게 하고 도깨비 불이 올라 간 집을 특정했습니다. 도깨비 불이 올라 간 집에는 우환이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깨비 불이 확인되면 재난을 피하기 위해 그 집에서는 우관(기원행사)을 지냈습니다.

실제로 스티치 언덕 근처에 살고 있던 분이 전쟁 전에 멀리 떨어진 나카구스쿠 쪽에서 큰 도깨비 불이 올라 간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밤에 나카구스쿠 방면에서 우티티다(낙양) 같은 커다란 빨간 불이 올라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도깨비 불이 목격된 지 며칠 후에 나카구스쿠촌 쓰하 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믿을지 믿지 않을 지는...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3 구시누카

밤에 일어나고 들어올 때 등에 이용되었던 우물입니다.

현재도 데루야 큰 도로의 연도에 남아 있습니다.



4 메뉴카

농업과 일상 생활의 세탁 장소로 이용되었습니다.

또한 전쟁 전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고인의 몸을 닦는 데 사용할 물을 이 우물에서 길었습니다.

메누카과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